

#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436 (주 날개밀)	221 (받아주소서)	165 (주의잔치)	416 (좋기도 좋을시고)

제 1독서 | 이사야서 35,4-7L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화답송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좌)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우)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좌)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독서 | 야고보서 2,1-5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7,31-37

영성체 후 묵상 |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다양한 것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시는지, 어떤 길들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기도 안에서 그분께 여쭙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Today's Gospel, <Mark 7,31-37>

Returning from the district of Tyre, Jesus went by way of Sidon towards the Sea of Galilee, right through the Decapolis region. And they brought him a deaf man who had an impediment in his speech; and they asked him to lay his hand on him. He took him aside in private, away from the crowd, put his fingers into the man's ears and touched his tongue with spittle. Then looking up to heaven he sighed; and he said to him, 'Ephphatha', that is, 'Be opened.' And his ears were opened, and the ligament of his tongue was loosened and he spoke clearly. And Jesus ordered them to tell no one about it, but the more he insisted, the more widely they published it. Their admiration was unbounded. 'He has done all things well,' they said 'he makes the deaf hear and the dumb speak.'

그때에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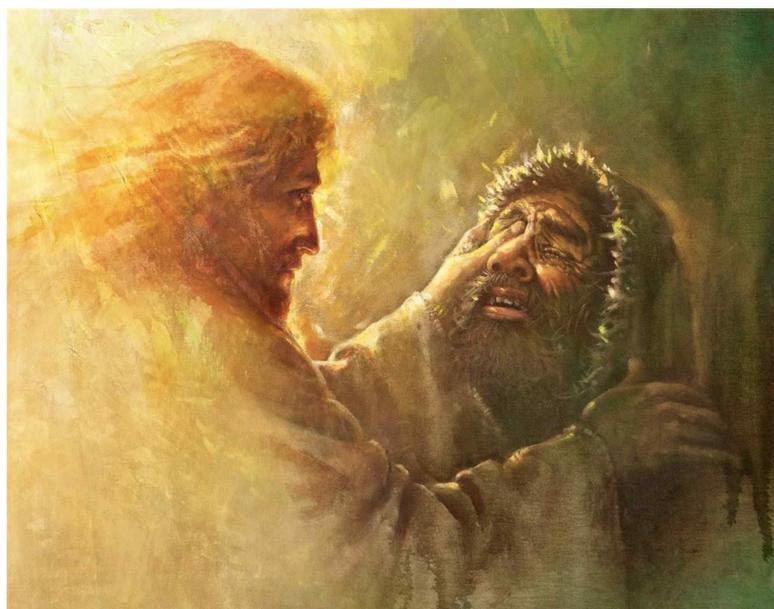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당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만질 수 없는 권능께서 만질 수 있는 지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당신께 다가와 당신 인성을 만짐으로써 신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몸소 당신 손가락으로 이 귀먹은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당신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고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분 손가락을 통하여 만질 수 없는 신성을 만졌습니다. 곧바로 묶였던 혀가 풀리고 그 귀의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몸을 설계하시고 육신을 지으신 분께서 몸소 그에게 다가가시어 부드러운 목

소리로 그의 닫힌 귀를 아무런 고통 없이 열어주셨습니다. 한마디 말도 내뱉을 수 없이 굳게 닫혀 있던 입이 향폐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꾸어 주신 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꽃 등, 심지어 사람조차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찾는 마음은 인간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진화생물학에서는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아름다움의 토대라고 말합니다. 예술가들은 아름다운 예술의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추하다고 합니다. 고급 예술과 고전 예술 작품이 지닌 탁월함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테지요. 과연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기준은 타당할까요?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생리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마음을 통해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생리적 차원을 넘어 문화적이며 의미론적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움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진화생물학적 인간학은 문화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판단에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를 공유하기에 아름다움이나 예술에 대한 보편적 느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모두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그 때마다 다르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는 예술사를 돌아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지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우리가 지닌 의미의 터전을 벗어나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자연적 조건과 문화적 토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름다움 역시 그러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느낌은 몸이라는 보편성 안에서 형성되지만, 그럼에도 그때마다의 고유한 문화적 토대를 벗어나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학의 동일성과 차이 원리입니다. 같은 인간이기에 우리

는 동일성을 지니지만, 그럼에도 나만의 고유함에서 오는 차이를 지닙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의 동일성을 차이로 만들어냅니다. 차이의 아름다움이지요.

철학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진리 및 선(善, 좋음)과 연관하여 논의합니다. 참됨과 좋음은 그 본성 때문에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참됨과 좋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참되고 좋은 것이지요. 가짜 꽃이 초라하게 보이고, 표절 예술과 진부한 예술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됨과 좋음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도 본성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꾸고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고난이 없거나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됨과 goodness를 간직하기에 그러합니다.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사람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울곧음과 참됨, 정의와 열정, 이웃을 향한 희생은 물론, 자기 절제가 뛰어난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하지요.

철학에서는 “예술이 구원과 해방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만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온갖 억압과 구속, 무지와 야만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야만이 넘치는 곳에서의 예술을 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기꺼이 함께하려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름다움 자체, 심미적 존재입니다.

## 공지 사항



### 1. 추석 한가위 미사 및 행사 안내

- \* 날짜: 9월 15일 (주일)
- \* 일정:
  - 11:30 ~ 12:00 위령을 위한 연도 및 분향
  - 12:00 ~ 13:00 미사
  - 13:00 ~ 14:00 점심 식사
  - 14:00 ~ 16:30 민속놀이 및 레크레이션

### \* <미사 후 식사 나눔>

작년과 같이 사목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신자분들께서 한 접시씩 준비해 오시는 음식을 함께 나누습니다.

\* 미사, 식사나눔, 그리고 행사를 위하여 봉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안내

9월 15일(주일)에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를 봉헌하며, 우리는 먼저 세상을 떠나신 가족, 친척, 은인들을 기억합니다.

이날은 미사 30분 전부터 위령을 위한 연도가 바쳐지며, 분향 또한 같이 이루어집니다.

\* 위령을 위한 미사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전 입구에 있는 예물봉헌 봉투를 사용하여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봉헌된 예물은 예비신자와 신자분들의 교리교육 및 피정 준비를 위해 쓰입니다.

### | 미사 참례자 수 |

8월 25일	유아·청소년: 30명	성인: 48명
9월 1일	유아·청소년: 36명	성인: 22명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9월 8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다음주 (9월 15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9월 1일)	루카반
다음주 (9월 8일)	마르코반

### | 우리들의 정성 | (8월 31일 ~ 9월 6일)

봉 헌 금	\$254			
교 무 금	\$920			
강원혜	권모순	김정수	김천주	김태룡
손재호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정은영	조성민	조성희	주정자
한상지	황병옥			

###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